



진안군-유관기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캠페인

진안군은 7일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안경찰서, 진안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진안초등학교 입구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방안이 담긴 일명 민식법이 2020년 시행된지 올해로 3년을 맞이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어린이 사상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진안군은 유관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교통안전을 확립 흥보를 위한 어깨띠를 착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금지, 운전중 스마트폰 하지 않기 등을 홍보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농협 정읍시지부, 제휴카드 적립 기금 전달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는 7일 정읍시에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지역 발전 적립기금 3,476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김철영 회계과장은 비롯해 이재연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장, 유승곤 정읍시청지점장이 참석했다.

전달받은 제휴기금은 정읍시청과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간의 신용카드 이용 약정체결로 지난 한 해 공무원 복지 카드와 보조금 카드 등의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액 0.1%~0.5%를 정읍시 발전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읍시에 약 1억 1,2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으며, 이 적립금은 그동안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왔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기금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제휴카드 기금 전달식 가져

김제시(시장 정성주)와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지부장 임인)는 지난 7일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김제시가 전달받은 기금은 1억 270만 원으로 양 기관 간 공동협약에 따라 지난해 1년간 김제시청 범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의 0.3~1.0%를 기금으로 적립해, 농협 김제시지부가 매년 김제시에 전달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오늘 전달받은 기금은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의 김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 생태단지관리단, 봄철 사고예방 안전점검

국립공원공단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단장 이지형)은 봄철 해빙기(2월~4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생태단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은 없었으며, 앞으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여 텁방객 및 종사자와의 안전한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수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인사

농촌진흥청

◆고장급 승진 ▲문지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채소과장

“국립공원 생태복지 확대 기여 희망”

덕유산국립공원-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지난 7일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국민 여가 트렌드를 반영한 친환경 MBTI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탐방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지연학습장 탐방 인프리를 활용한 MBTI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청소년 심리상담기관과 연계, 참여자 심리(성격)진단을 토대로 자신의 주요 성격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연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 하였다.

특히,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참여자 대상 성격진단 및 상담을 통해 인간관계 및 건전한 자아 성장을 돋우고 자연 속에서 성격유형에 맞는 친환경 생태체험을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의 소통 감수성을 높이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덕유대지연학습장 특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구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적물적 상호교류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상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여가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탐방 협약을 계획으로 국민여가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탐방 협약을 계획으로 ”모두가 행복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건협,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지원 성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최근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들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나섰다. 지난 6일 건협은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지원은 국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넘어 세계구호에까지 손길을 내밀며 인도주의적 지원에서도 앞장서 선한 역할력을 드러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은 2월 6일 새벽 7.8 규모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강도높은 여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으며, 튀르키예 지진은 최근 20년 동안 발생한 지진 피해 중 6번째로 큰 규모이다.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현재 4만1000여 명에 이르며 피해자는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시리아는 현재 내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자 집계도 어려운 상황이라 실제 사망자수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급식비 및 주거지원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건협의 성금지원은 나눔 및 후원사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다.

김인원 건협 회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후원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소아전문 진료 인프라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에 전북대학교병원이 7일 선정됐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이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진료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중증소아 질환 어린이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반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설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진료센터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대병원은 중증소아 질환에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 인프라 지원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대병원은 어린이병원 조대선 원장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시범기관 지정식에 참석해 지정서를 받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전북대병원을 포함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철곡경북대병원, 양양부산대병원 등 전국 10개 병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조대선 어린이병원 원장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료여건을 강화시키고 어린이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이원석 (주)중앙청과 대표가 7일 김제를 방문하여 고향사랑 기부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원석 대표는 “평소 김제 광활농협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 김제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김제를 위한 특별한 기부를 하게 되어 기쁘고, 이번 기부가 출향이뿐만 아니라 김제에 애정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하게 되는 미증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표명하여 주신 이원석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김제시가 더욱 발전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이내로 본인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



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딥레버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연지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 백미 기탁

연지새마을금고(이사장 유연천)는 7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580만 원 상당의 백미 20kg 100포를 연지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연지새마을금고를 방문한 고객들이 ‘사랑의 좀도리’ 저금통에 모금한 모금액과 지난해 연지새마을금고의 경영수익금 일부로 마련됐다.

유연천 이사장은 “고객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따뜻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명석 동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쌀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덕진경찰, CCTV관제센터 요원 유공 감사장 수여

전주시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활약으로 자살기도자를 구호로 이끈 공을 인정받아 전주덕진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이 7일 전달됐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전주시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에 근무하며 재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한 요원(실명부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주덕진경찰서장실에서 감사장을 수여했다.

모니터링 요원은 지난달 20일 09:30경 이중호수에서 의심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을 발견하고 세밀한 모니터링 한 후 자살의심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112신고로 신고했다.

이 신고로 모니터링 요원은 자살기도중인 A씨(20대, 여)를 구호조치하는데 기여한 유공을 받은 것이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실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모래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 당부 등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일과 6일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삼척시 전통시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유사 화재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서에서는 시장 상인회를 찾아 소방안전컨설팅을 진행한 뒤 시장 상인 대상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자료 점검, 전기·가스설비 관련 안전 수칙 교육, 전통시장 내 소화전·소방통로 주변 질서 유지, 보이는 소화기 점검 등을 실시했다.

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로 화재 예방과 대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최근 노후 전선 정비공사 등을 함께 진행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덕진소방서 노정엽 방호구조과장은 “전통시장 화재에 방지 꼼꼼한 안전점검과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철시 순찰로 상인들과 방문객 모두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